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열정의 제자 베드로 (마 10:2-4)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수제자였습니다.

1. 그의 이름과 회심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고,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실 가볍고 다혈질적인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은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장차' 게바, 베드로, 즉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장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차 교회에서 반석 같이 쓰임 받는 자가 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2. 베드로의 소명

베드로는 회심하고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심을 하고도 얼마 동안은 여전히 어부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막 1:14).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허탈해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부르심의 소명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 베드로의 체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강하게 체험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물 위를 걷은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입니다(벰후 1:16-18).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같은 체험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체험은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말씀이라고 말합니다(벰후 1:19).

4. 베드로의 신앙고백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고백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실로 반석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Peter, a Passionate Disciple (Matt. 10:2-4)

Peter who had received Jesus truth and love was the best disciple

1. His name and conversion

Though Peter's real name was Simon, Jesus, upon seeing him, gave him a new name, Peter. In fact, it almost seemed that the name of Peter did not go with his light and hot-blooded personality. However, Jesus said to Simon, "You, 'in the future' will become Ceph as, Peter, and a rock." Here, the important word is 'future'. In other words, Jesus knew that he would not be used right now, but in the future, he would be used like a rock in the Church.

2. Peter's calling

Peter heard the good news but did not receive a calling. For a time he lived his life as a fisherman (Mark 1:14).

In Mark five, Peter made an effort to fish all night long, but he did not catch even a fish.

When he was dejected, Jesus said to Peter that he should cast a net into deep water.

In fact, he was a fishing expert. Nevertheless, Peter relied on Jesus so he casted a net. Because he obeyed his word, he was able to catch a lot of fish. Just at that time, Peter was called by Jesus. "And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Owing to His calling, Peter left his net and followed Jesus.

3. Peter's experience

Peter had two incidents when he experienced Jesus Christ. One was that he walked on the sea water, and the other was Jesus' transfiguration of which he was an eyewitness on the mountain (2 Pet. 1:16-18).

Moreover, by adding such experiences, he said that the most valuable experience should be the word of the Bible which prophesies more clearly. (2 Pet.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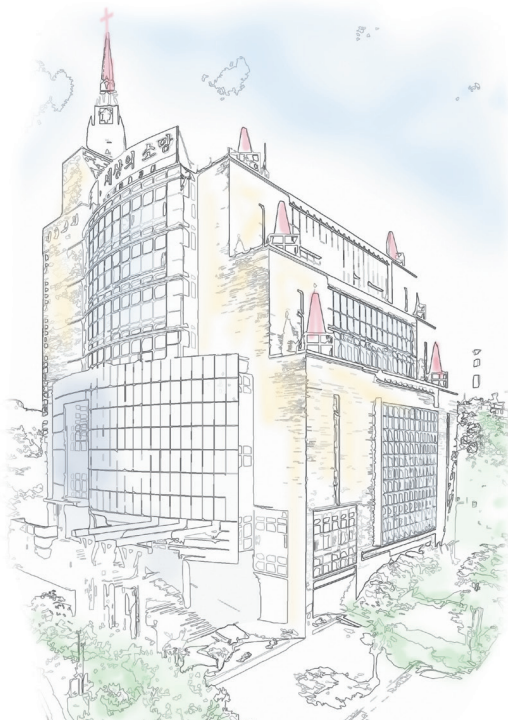
4. The confession of Peter

The greatness of Peter was that he was the first man who confessed his faith to Jesus. When he confess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att. 16:16), Jesus was very pleased and said,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and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My beloved Christians,

Just as the Apostle, Peter who was a rock and influenced people with the Gospel.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used as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오리엔테이션: 8월 25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8월 25일(주일) -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하영수 장로)는 2013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6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브리스길라 장학생 - 2명 / 허승일, 박다형
2. 송암장학생 - 27명
김재욱, 김준석, 백성훈, 박성윤, 손형린, 이한호, 한동현, 이유빈, 이준호, 이승준, 이해진, 박선영, 김기남, 천예은, 김수정, 제연주, 이신원, 권보화, 최경미, 박한준, 이경빈, 임이랑, 조재석, 이근원, 박경주, 한현지, 김혜진
3. 디아스포라부 - 7명
박효진, 홍정원, 권영숙, 홍지아, 유수정, 최현화, 김진수
4. 교역자, 선교사 자녀 - 7명
황신혜, 한세희,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더, 김하은, 조라빈
5. 호산나전문대학 - 3명 / 이현상, 문병훈, 노다은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8)
(문 97) 압살롬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자기 무덤에 실제로 매장되었습니까?

(답) 사무엘하 18:17에 의하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린 것을 요압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군인들이 그를 쳐 죽인 후 압살롬을 수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풀은 길러진 땅에 위치한 소위 에브라임 족속의 영토였던 곳입니다. 압살롬의 시체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졌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왕이 그 소식을 듣기 전에 그 시체를 즉시 큰 구덩이에 던져 불명예스럽게 매장을 해 버렸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소위 압살롬의 무덤(삼하18:18)은 그가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만들어 세운 것으로 그에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키 위해 비석에 이름을 붙여 기드론 골짜기에 세운 것이 오늘날까지 (사무엘하가 완성된 것은 750 B.C)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석은 단순한 기념비 일뿐 압살롬의 시체가 실제로 매장된 곳은 아닙니다.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의 연합군을 파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난 사위 골짜기를 가리킵니다.(창14:17)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400m 거리에 있고 (Josephus) 이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로 오늘까지 알려진 곳입니다. 압살롬의 비석은 히브리적이기 보다 그리스적 전통의 기원을 따라 전해오고 있는데 피라미드처럼 끝이 뾰족한 12m정도의 기념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교역자 휴가

- 임규현 목사 : 8월20일(화)-27일(화) 주일은 제외
대행: 한상은 목사
- 장석남 목사 : 8월20일(화)-23일(금)
대행: 정수길 목사

책장 신청

최근 목양실 구조 변경으로 인해 생김 책장이 지하 1층에 보관 중이다. 책장을 사용하기 원하는 부서는 오늘 사무국으로 신청 바란다.

사무국은 신청 부서를 분류하여 설치가능한지 확인 뒤 배치 할 예정이다.



2013년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

9월12일(목)~13일(금)

9월12일(목)~13일(금)에 실시될 2013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바자의 주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이며 목표로는 1.생명의 우물파기 2.미자립교회 돕기 3.불우이웃 돕기 4.탈북난민 돕기 5.아가페타운 지원으로 정하였다.

지난 7월21일 주일 아침 생명의 우물파기지원 모금행사 시작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은혜로운 바자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 뒀다. 1, 2, 8층에 우

물형상을 준비하고 그 취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부쳐 놓았으며 이는 성도 여러분의 헌금이 모아질수록 우물에 물이 차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헌금을 모으려는 목적 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듯, 우물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의 마음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섬김의 기쁨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바자를 위한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명의 우물파기	~8월25일(주) 까지 / 1,2,8층 모금함 / 유년부(8/4), 초등부(8/11), 중등부(8/18), 고등부(8/25) 동참
1% 나눔 운동	8월 4일(주) ~ 8월25일(주) / 현금 시
헌 옷 모으기	8월11일(주) ~ 9월 1일(주) / 104호
특 관	8월11일(주) ~ 8월25일(주) / 1층, 8층 접수 및 판매
어린이 바자	8월25일(주) / 유년부, 초등부
사랑의 바자	9월12일(목) ~ 9월13일(금) / 전체 바자회

8월 학습·세례식 거행

문답총정리 : 오늘 1, 2부예배 후 607호
문답 : 오늘 오후 2시 602호

현재 8월 학습, 세례식 신청 마감일이 지난 11일(주)로 완료되었다. 오늘 1, 2부 예배 후 607호에서 문답 총정리가 있을 예정이니 세례, 입교, 개종, 학습, 유아세례 대상자들은 필히 참석 바란다. 문답은 오늘 오후 2시 602호에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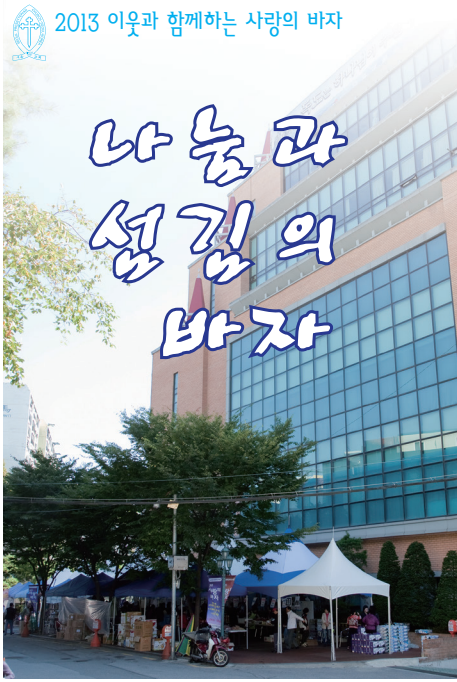
8월 학습, 세례식은 8월25일(주일) 1,2,3부 예배시에 거행한다.

신혼가정부 여름수련회

8월 23일(금)~24일(토) / 서울교회

신혼가정부는 8월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서울교회에서 부부, 평생의 친구란 주제로 수련회를 한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가정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2013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



나눔과 섬김의 바자



차도훈 집사
(2013 사랑의 바자 차장)

2013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자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바자를 위한 준비와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배려하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눔과 섬김은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한 일이고, 세상을 향하여 펼쳐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 때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힘에 겨워 쓰러져 있던 이들이 우리가 내미

는 손을 잡고 일어설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더 행복해집니다. 떠밀리듯이 마지못해 할 때에는 버겁기만 하고 기쁨도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나누고 베풀 때에는 행복의 크기도 배가 되어집니다.

행복 나눔 A+ “1% 나눔 운동”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바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교인사업체 및 외부기업 등에서 월매출액의 1% 또는 수입 중 일부를 사랑과 행복 나눔을 위하여 기부하시는 운동으로 직접 현금하시거나 참여(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월 마감을 하신 후에 약정금액을 현금하여 주시면 모금된 금액을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헌 옷 모으기”는 8월 한 달간 옷장에 보관은 하고 계시지만 입지 않으시거나 몸에 잘 맞지 않는 의류 등을 정리하신 후 모아서 8월 18일 주간부터 9월 1일(주일)까지 교회에 바자 물품으로 기증하여 주시면 잘 정리하여 필요하신 분들께 적당한/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나눔 실천운동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바자”는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초등학교생들을 어려서부터 바자라는 나눔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인격체로 양육하기 위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회학교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하게 되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바자로 8월 25일(주) 예배 후 2부 순서로 행사가 진행 됩니다.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판”은 시중 가격보다 15% ~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여 성도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교인사업체 및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한 달 전인 8월18일(주)부터 9월1일(주) 까지 주문을 접수하여 원하시는 주소로 직접 택배발송을 해드리는 사전 특별 판매 서비스입니다. 현재 김, 한과, 참치, 햄/소시지, 생활용품 등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자 섬김 위원들은 매 주일 3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은혜롭고 성공적인 바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2013년 사랑의 바자가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소외된 이웃에게 베푸는 나눔과 섬김의 바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기도와 참여로 협력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자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중세례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군대를 거듭나길...



김유근 성도
(비전2020 운동 위원)

지난 8월 10일 우리교회 비전2020운동본부 주관으로 양평에 있는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샘물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례부, 워십팀, 시니어중창단, 비전2020위원 등 44명이 오전 11시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

하였습니다. 마침 휴가철이라 출발 후 얼마 가지 않아 차량속도가 줄면서 서행하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 이리다 세례식에 늦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길이 막힐 것을 감안은 하였지만 이렇게 막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상시는 1시간 남짓 걸리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려서 부대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점심은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했습니다.

이날 세례식에는 훈련병 전체 250여 명 중 182명



이 참여했고 그 중 무려 14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체되었지만 병사들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고 순서에 따라 예배와 세례/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상은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3절-5절의 말씀으로 ‘세례의 의미’란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따라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사단 진중세례, 성찬식이 다 하나님

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20사단 훈련병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생명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며, 개인적으로 군복무 및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원하며, 또한 민족복음화를 위한 군복음화의 비전 2020 운동에 우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3 비전트립



사는 발치, 치과교정과 덧 씌우는 시술을, 통증클리닉 전문가인 김봉배 집사는 그곳에 체형상 허리 통증 환자들이 많아서 존재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이승현 집사에게는 수많은 내과 환자들이 그들의 지병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집사는 마지막날 사탕을 먹다가 질식사 하기 직전인 어린 아이를 순발력있게 처치하여 우리 모두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연일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에 한 두명씩 사역팀 지체들이 지쳐가고, 대학부 성화 형제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서명철 목사님은 수요일부터 오는 날까지 4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므로 비전트립팀에 영적 파워를 실어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금식까지 하시어 건강을 해칠까 싶어 금식을 만류했지만 목사님은 끝내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모두가 부족함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무슬림의 영향으로 알콜 중독자와 과부와 고아가 넘쳐나지만 언젠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이번 사역을 인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었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준호 집사 (2013비전트립 단장)

이번 비전 트립은 의료 사역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네 분의 의사가 각각 청년 헬퍼 한 명씩을 데리고 5일간 1200건의 진료를 했다는 것은 가히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분의 의사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피곤한 기색 없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이처럼 수고하고 땀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팀이 가기 전부터 타라즈 지역과 인근에 한국에서 의료진이 온다는 소문이 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들이 교회 안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철웅집사는 등에 20년동안 가지고 있던 할머니의 큰 지방종을 제거해 드리는 큰 수술을 비롯하여 6건의 수술과 초음파 시술을 하였고, 정현구 집

사들은 등에 20년동안 가지고 있던 할머니의 큰 지방종을 제거해 드리는 큰 수술을 비롯하여 6건의 수술과 초음파 시술을 하였고, 정현구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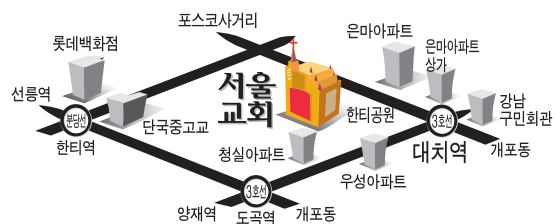
사들은 등에 20년동안 가지고 있던 할머니의 큰 지방종을 제거해 드리는 큰 수술을 비롯하여 6건의 수술과 초음파 시술을 하였고, 정현구 집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층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노문환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성진 집사의 지휘로 "하나님께 영광", "내 원대로 마소서", "주의 빛 안에 살면"의 세곡을 찬양드리며,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언 성도,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하고, 유학을 앞둔 솔로리스트 박나에 성도 (소프라노)가 "축복하노라"를 임혜원 성도의 풀룻과 배지에 성도의 첼로로 협연 한다.

주일 주·정차 단속 강화
성도들의 주의 필요

강남구청으로부터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주일 주·정차 순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통보가 왔다.

성도들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주일 주·정차 단속이 유보되어 있는 삼성로 주변 주·정차시 반드시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정차하고,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주차, 인근 아파트 출입구 주위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주일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9일(월) 한정중 제5회 장로교의 날 평가 및 정책간담회에서 축도한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기자회견을 갖는다

■ 주간식당봉사 : 스테반회(8.18) 제1권사회(8.25)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개학을 맞은 모든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비전 가운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 2013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과 목회자 세미나, 사랑의 바자가 잘 준비되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3. 신혼가정부 수련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